

MK 사역은 가정사역입니다.

[1 슬라이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페루에서 온 탁영준 선교사입니다.

여기 MK 가 계시나요?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여기 선교사님 계시나요?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MK 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보고 느끼게 해주신 것과, 저희 부부에 담당하게 해주신 MK 사역의 ‘행복한 고민’을 이 시간에 나누게 해주시도록 인도해주신 주님과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슬라이드]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비슷한 격언은 “부전자전” “피는 못 속인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정도 일 겁니다.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뜻은 아이는 부모가 하거나 해왔던 특성이나 경향, 즉 자녀가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부모가 하는 것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일 것입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영향과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간단한 탁영준 간증 나눔)

MK 사역은 저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이 제시하고 생각하고 있는 선교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MK 들이 선교사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의 나눔’이고 ‘섬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리더십을 어려서부터 체득하게 되는 이 훈련을 감당하는 MK 들을 바라보면 기대와 소망에 저의 가슴이 뛰며 행복해집니다.

또한 MK 사역만큼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어느 사역 못지 않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믿음의 ‘선교사 1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성경의 기록된 출애굽의 약속 여정을 실감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K 사역에서 주시는 확신이 한 가지 있는데, 행복한 MK 는 행복한 선교사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자녀 부모님께서서는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3 슬라이드]

저희가 파송 받은 CMF 선교원의 대표 김철민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돕는 선교”를 담당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선교사 가정을 세우는 사역’ (CMF 선교사 부부축제, CMF 사모교실, CMF MK Celebration)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20 년 가까이 섬기시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1.5 세와 2 세 자녀들을 위한 ‘CMF 결혼교실’을 30 여년 섬기시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도록 사역을 지금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열매가 저희 부부입니다.

CMF 선교원 사역 중에 결혼교실, 선교사 부부축제, MK 수련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은 ‘가정’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이 모여 교회를 세우며,

건강한 교회는 많은 선교사 가정을 파송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선교사 가정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한’ 형용사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선교사 가정’에는 ‘건강한 선교사 자녀 MK’들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를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라고 말씀 드린 속담이 적용이 되겠죠.

[4 슬라이드]

이제 남미 페루를 중심으로 MK 사역이 가정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하나님이 동유럽과 영국, 동남아, 중동,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있는 MK 들과 수련회 이후 계속된 교제 가운데 나눈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 문화권과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시작한 이래 40 년을 넘어가며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쯤에서 성경의 한 가지 교훈을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에서 단 2 대에 끝나버린 짧았던 믿음의 세대를 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함께 하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다시 한 번 그 교훈과 방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중 파송 받으실 때 기억하시는지요?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낯선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김아무개 선교사님과 박아무개 선교사님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 그리고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또 그분들을 파송 하신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이셨습니까
그런데, 파송 교회의 기도 제목 속에는 ‘잊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MK 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가슴앓이 하고 자라온 MK 들입니다. 어려서 하얗고 순수하던 그 마음에 무엇으로 그리며 채워가고 있었을까요?

일반화 할 수 없지만 각 선교사님 가정에는 자녀들과 부모님 선교사 세대간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언급한다면, MK 정체성 혼란, 부모님의 권위 상실과 부모를 향한 존경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으며, 현지인을 향한 불만과 불신이 다음 세대 복음의 일꾼들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같았던 김 아무개 선교사님 가정에서 제 2 의 고향에서 ‘MK 정치인’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 같았던 박 아무개 선교사님 가정에서 그 땅의 ‘MK 대학총장’이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그 MK 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 ‘땅’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5 슬라이드]

선교사 자녀 (MK) 사역이 가정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MK 자녀들을 대할 때 기억하는 말씀을 담은 사진 한 장과 도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Hilltop 사무실 벽에 스페인어,한국어, 영어 붙여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

제목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MK 들에게 기회가 될 때 마다 함께 읽습니다. 읽고 나면, MK 들 마음에 그림 하나가 그려집니다.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 입니다.

[6 슬라이드]

이것은 “관계 정삼각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 ‘선교’를 표현한 것. 정삼각형은 ‘균형이자 온전하며 성숙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선교”는 매일 먼저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을 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그 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는 줄 생각합니다.

[7 슬라이드]

여기 완전한 정삼각형을 우리 MK 들이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학의 ‘직각 삼각형의 값 구하기’가 아닙니다. ‘관계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가운데 위 꼭지점에는 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입니다.

그리고 아래 쪽 좌, 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에서 나 외에 사람들과 관계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들, 자매들, 친구, 동료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것은 나는 동시에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우리도 보기에 아름다운 관계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관계’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MK vs. 부모 선교사님 관계이고, 두 번째로 MK vs 이웃, 현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엇이 MK 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경적 대안을 갖고, MK 사역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 슬라이드]

반대로, 감사한 것은 저희는 이 장면을 자주 봅니다.

MK 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발버둥치고 순종하기를 애쓰면,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MK 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과거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9 슬라이드]

예제로 [관계 1]에서 MK 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MK 와 부모님 사이에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도 교육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선교사 가정은 더 민감하고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 교육의 관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페루를 비롯 남미 MK 는 홈스쿨링, 국제학교, 개신교학교, 천주교학교, 일반사립학교, 기숙사학교, 한국 유학, 미국 유학(친인척 관계)에 다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양육방식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다투시고 언성을 높이시는 모습이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 한 예를 들면, 중남미에 있는 MK 를 포함 한인 2 세들은 미국 한인 2 세들 보다 훨씬 한국말을 잘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의 교육 의지, 책임,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MK 들이 어려서부터 현지 학교에서 현지인들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보다 언어도 문화적응도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부터 부모님을 바라 볼 때 언어도 부족하고 현지인과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는 부모님을 보면서 MK 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창피해 하고, 쉽게 다른 한인 분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때론 버거워서 숨거나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선교사 사역을 도와야만 하는 것을 금새 체념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MK 들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모습만큼 자녀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비전, 방향, 방법으로 인해 언쟁이 있는 모습은 MK 들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MK 는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 교수님들에게까지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을 속으로 삼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부담을 드리기를 싫어서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이니까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MK 가슴에 쌓여서 혼자서 해결하려 할 때, 우울증, 나쁜 중독, 그리고 슬프지만 자살 시도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모님과 관계를 점점 갈라 놓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든다는 것 입니다.

[10 슬라이드]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에베소서 6:4 새번역)

이 말씀에서 실천하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노엽지 않게 훈련과 훈계하기”입니다.

“어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도 어렸을 때 Out of control 이었어.”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쉽게 화를 잘 냈는지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그랬지요?” 마음 속으로 주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네가 나 원망 많이 하면서 힘들어 했잖아.”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땀에 미친 엄마가 그 땀 참 미웠어요.”

그래서 주신 마음이,

“그러니까 네가 MK 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훈계보다 훈련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계가 필요 할 때도 ‘사랑’이 느껴지면 듣더라고요. 멀리 안가고 빨리 돌아 오더라고요.

MK 들 가운데 마음 받아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 받고 있는 MK 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작동합니다. (신 29:4)

그리고 “역시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지도 주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행복한 고민은,

“MK 와 부모 선교사님 사이에 있는 틈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붓고, 채우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을 붓기 위하여 MK 사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보고 설명할 것)

[11 슬라이드]

예제로 [관계 2]에서 MK 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MK 와 이웃,현지인 사이에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 복음 들고 타국에서 타민족을 섬기고 제자 만드는 일 만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감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MK 자녀들 앞에서 마음과 대화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스트레스 풀려고 식사 하다 말고, Roberto Carlos(가장 흔한 라틴계 이름)가 사고 난 것을 이야기 시작하다가, 이 전의 History 가 다시 나오고, 나중에는 Carlos 만 아니라 다른 사역자 또는 성도들이 찾아와 힘들게 만들고 돈만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시면……

먼저는 우리 MK 들 생각에 부모님이 힘드니까 가족이 서로 보호하고 뚝뚝 뭉치자는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걷어가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한인 선교사님들과 오해로 시작해서 서로 교제를 끊어 버리시면 MK 들 마음에 선입견이 생겨서 여간 해서 마음 바꾸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 선교사님들의 부정적인 말이 돌 팔매질이 되어 스트레스는 잠시 풀어줄지는 몰라도, MK 들 마음에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 같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선교사님 가정 심방을 가면 꼭 주일 사역지를 방문하며 MK 들의 모습을 살펴 봅니다. 기쁨이 없이 거의 무표정인 MK 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현지인에 관해 무관심한 것 입니다. 그 후에 MK 들과 대화를 해보면 오랫동안 쓴 뿌리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증오, 배척, 경멸하는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인해 이웃과 현지인들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MK 들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MK 태권 간증: 복음 101 이라는 1:1 성경공부를 하다 말고 MK 가 페루 사람들을 증오하고 배척하고 경멸하다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던 MK 가 COVID-19 에 온 가족이 고생할 때 그 가난한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섬겨줬을 때 엄청난 회개를 하게 만드시고 의사가 되면 페루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12 슬라이드]

성경적 대안은 역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MK 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의심 없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권위’입니다. 말씀의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지혜, 총명)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에 주셨던 “넓은 마음”(왕상 4:29)을 받으면 우리 MK 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부부가 다음 세대 선교사들인 MK 마음에 현지인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역은 이렇습니다. (PPT 보고 설명할 것)

[13 슬라이드]

저희 부부가 아니 모든 MK 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맞는 고비가 올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 받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4:28)

[14 슬라이드]

저희 부부는 MK 들에게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그 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 MK 와 선교사님 가정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PPT 보고 설명할 것)

[15 슬라이드]

이제 Closing 하겠습니다.

(PPT 보고 설명할 것)